

# OVERWATCH®

남겨두고 떠난 것



ALYSSA WONG 단편 소설

# 남겨두고 떠난 것



그  
*ALYSSA WONG*

원화  
*ARNOLD TSANG*

바티스트 의무병 모델링  
*NATHAN BROCK*

바티스트 오리지널 모델링  
*HONG-CHAN LIM*

바티스트 오리지널 컨셉  
*BEN ZHANG*

디자인 및 레이아웃  
*BENJAMIN SCANLON*





## 남겨두고 떠난 것

“숨 크게 들이쉬시고요.” 슬리퍼를 신은 채 진찰대에 걸터앉아 있는 여성의 등 뒤로 바티스트가 청진기를 대며 말했다. 여성의 이름은 티보. 일흔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도 총기가 넘치는 여성이었다. “네, 잘하셨습니다.”

“총각, 뭐 이상이라도 있어?” 티보 부인이 기지개를 켜며 입을 열었다. 그리고는 바티스트와 시선이 맞닿자 한쪽 눈을 찡긐하며 눈짓을 보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건강하시네요.” 바티스트는 청진기를 접으며 티보가 진찰대에서 내려오는 걸 도우려 손을 내밀었다. 마침 진료를 위해 입고 있던 순백의 가운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 일주일이나 이주 되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몽드시어 선생이 연락을 드릴 건데, 조카분 편으로 전해달라고 언질해 둘까요?”

“나도 전화 있어. 직접 전화해도 돼.” 티보는 다시금 기지개를 켜며, 색색깔의 팔찌를 양 손목에 찼다. 그런 다음 바티스트가 내민 손을 잡으며 천천히 진찰대에서 리놀륨으로 된 진찰실 바닥으로 발을 내디뎠다. “참, 그러고 보니 내가 총각 번호를 모르는데 말이야.”

바티스트의 도움을 받으며 복도로 나온 티보가 한 말이었다. “아, 죄송하지만 제가 곧 이 도시를 떠날 거라서요. 다음 치료부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대신 더 유능한 몽드시어 선생이 맡아드릴 겁니다.”

좁디좁은 진료소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이어지는 환자들의 행렬에 진찰실 두 곳이 종일 숨 쉴 틈도 없이 바쁘게 돌아갔다. 심지어 해가 다 저문 저녁에도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로비에 마련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다. 로비의 벽은 샛노란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에어컨이 바로 뒤에서 웅웅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몰아치는 환자들의 폭풍이 끝나고, 마중만을 즐기게 된 제2 진찰실에서 몽드시어가 한 손에 서류철을 든 채 나왔다. 머리를 땅아 둥글게 말아 올린 그녀가 안경 너머로 바티스트를 쳐다보았다. “티보 부인은 좀 어떠셔?”

바티스트는 벽에 몸을 기댔다. “건강해 보이시긴 해. 혈압도 정상이고, 폐에서 나는 소리도 정상이고. 반사 신경도 이상 무. 차트에 다 적어놨어.”

“연락처 같은 건 안 물어보셨고?”

바티스트가 한숨을 흘리고는 “물어보셨지.”라고 답했다.

몽드시어가 팔죽지 틈에 서류철을 끼우고는 씩 웃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렸어, 며칠 뒤에 난 떠날 예정이고 이후 진료는 네가 담당할 거라고 말이야.” 바티스트는 다시 로비를 훑듯 쳐다봤다. 티보 부인은 차분히 의자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며 조카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부인 맞은편에도 10대 한 무리가 하나같이 휴대폰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바티스트는 문득 그들이 함께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닐지 궁금해졌다.

“아, 근데 난 너처럼 근육이 없잖아, 장바티스트.” 몽드시어가 바티스트의 알통을 톡톡 치며 말했다. 그리고는 입가에 웃음을 띄며 몸을 돌려 접수 데스크로 향했고, 그 등 뒤로 백의가 펠럭었다. “금요일에 떠난다고 했지? 아쉽네. 웬일로 다른 때보다 한참 더 머문다 싶더라니.”

둘은 포르드페 외곽에 있는 보육원에서 함께 자랐다. 바티스트가 카리브 연합에서 복무하는 동안 몽드시어는 의대로 진학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어린 시절 바티스트와 몽드시어가 꿈꿔온 것은 진료소를 열어 이웃들을 치료하는 것이었고, 바티스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축한 돈을 조금씩 보내곤 했다. 심지어 그것은 지금까지도 틈만 나면 계속되었다.

“한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바티스트가 말했다. *탈론이 날 쫓고 있으니*. 차마 입밖으로 내지 못한 말이 입 속을 맴돌았다. 바티스트는 몽드시어를 따라 접수 데스크 뒤에 있는 책장으로 다가갔다. 책장엔 진료소의 온갖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몽드시어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인쇄된 종이를 고집하는 별난 사람이었다. 소위 구시대적이란 말이 그녀에게 딱 어울리지 않을까. “찾는 거라도 있어?” 몽드시어가 까치발을 들고 책장 꼭대기의 무언가를 꺼내려 하자 바티스트가 물었다.

“나도 할 수 있거든요.” 붉은 서류철을 끄집어내며 몽드시어가 말했다. 책등에는 검은 유성펜으로 어느 해에 작성되었는지 쓰여 있었다.

“이 근육 뒤틀다 뭐 하겠어, 도와줄게.” 바티스트가 말했다. 몽드시어는 서류철을 넘기며 얼굴에 오만상을 쓰고 있었다.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

사람들로 가득한 대기실을 힐끗 쳐다본 몽드시어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약품 캐비닛 좀 확인해줄래?”

바티스트는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재고 목록이었다. 그렇잖아도 아침 일찍 확인해 본 재고 상황은 좋다고는 할 수 없었다. 플라스틱 통 안에는 오래된 약품 샘플만 몇 병, 몇 상자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고, 캐비닛에는 빈 칸이 수도룩했다. “좋아, 뭐가 필요한데?” 바티스트가 물었다.

“전부 다.” 서류철을 덮으며 몽드시어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책장에 다시 꽃아 넣고 옆에 꽂혀 있던 다른 서류철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은 급한 불부터 꺼야 해. 혹시 괜찮으면...”

바티스트가 몽드시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로잘린, 그냥 말해 봐.” 그리고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혹시 진료소에 돈이 부족한 거야?”

“시기가 시기기도 하지만, 생클레어 제약사가 계속 약품 값을 올리는 게 문제야. 전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살 수는 있었는데 이제는 구경조차 못 할 정도라고.” 몽드시어 박사가 말하며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을 문질렀다. “이건 범죄나 다름 없어. 결국 가짜 약까지 먹고 합병증에 걸려서 올 지경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짜 약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냐고? 하긴, 약 없이 고통받는 것과 뭐라도 쓰고 어디에 매달리는 거, 거기서 고르라고 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바티스트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는 대기실에서 끈질기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보살피고 싶어도 보살필 수 없다는 것은 고통이다. 그가 오래전에 깨달은 교훈이다. “어떻게 도움 방법 없을까?”

몽드시어 박사가 웃었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다. “너한테 요술봉이 있으면 모를까, 힘들겠지. 베르나르 생클레어 같은 인간들은 쉽게 변하지 않아. 자기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 해도 눈 깜짝 안 하는 사람인데 뭘.”

“오버워치가 있었다면 그런 놈들을 쫓아내 줬을 거예요.” 접수처 직원이 중얼댔다. 간신히 10대 티를 벗은 듯한 앳된 청년 직원이었다. 그 역시 몽드시어 박사만큼 지켜보였다. 바티스트는 언제부터 진료소가 이런 꼴이 된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말했잖아, 그건 요술봉을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몽드시어 박사가 건성으로 말했다.

벽 쪽의 소녀가 벌떡 일어나더니 운을 뚫다. “오버워치, 돌아왔던데요?” 그녀의 친구들도 고개를 들었다. 다 기억이 나는 아이들이었다. 지난번 이곳에 왔을 때는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며 이리저리 뒹놀던 애들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큰 건가. 4년 전, 그가 막 탈론을 떠나려던 시기였다.

바티스트는 카운터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그래?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지, 에스더?”



에스더는 어깨를 으쓱이며 다시 전화를 내려다보았다. “벌써 인터넷에 다 퍼졌는걸요.”

“인터넷을 전부 믿으면 안 돼.” 바티스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역시 한때 오버워치가 되는 것을 꿈꿨기 때문이다. TV에서, 모집 포스터에서 보이던, 평화와 인류를 지키는 찬란한 영웅들을 믿던 때가 있었다.

한때, 영웅이 되기 원했던 그는 카리브 연합에 입대해 의무병이 됐다. 하지만 오버워치는 아이티에 오지 않았다. 그렇게 오버워치 조직이 해체되던 때 바티스트의 꿈도 조용히 사라졌다. 사람들을 도울 방법은 많았다. 단지 포스터에 얼굴만 비추는 것처럼 쉬운 일들만 있던 않았을 뿐이다.

“에스더, 네 차례 같은데. 제1 진찰실로 들어가 봐.” 바티스트가 말했다. 에스더는 반바지를 털며 일어섰다. 그녀의 가방끈엔 유성 매직으로 오버워치의 상징이 그려져 있었다. 바티스트의 시선을 알아챈 그녀는 상징을 손으로 감추고 눈길을 돌렸다.



진료소를 나왔을 때는 이미 어둑해진 밤이었다. 사실은 환자들을 다 볼 때까지 남아있을 작정이었지만, 몽드시어 박사는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고 냉담하게 말했다. 마치 본인은 새벽까지 혼자 일한 적 없는 것처럼. 일손이 더 있다면 좋을 텐데.

이웃을 돌보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진료소야말로 바티스트가 가장 기본 중게 있을 수 있는 곳이었다. 벌써 그곳이 그리워지고 있었을 때, 그는 자신이 거리를 따라 걷고 있음을 깨달았다. 매미가 날개를 비비며 내는 청아한 소리, 끈적하면서도 친숙한 여름 공기, 길교통이의 노점에서 피어오르는 돼지고기 요리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었다. 아이티, 그리고 탈론을 떠나면서 바티스트는 세계를 돌아다녔다. 어디든 오래 머무는 일이 없었지만, 그에게 항상 돌아올 곳은 포르드페뿐이었다.

*이렇게 오래 머물렀던 적이 있었든가.*

이따금 바티스트는 그냥 놀러앉아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건 그에게도, 로잘린이나 티보 여사한테도 위험한 일이었다. 한곳에 오래 머물수록 추적이 쉬워진다. 탈론이 그를 찾아낸다면 이후 벌어지는 참상이야 볼보트 뺨할 것이다.

“그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바티스트는 크게 혼잣말하며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하얀 건물들 사이로 하늘이 펼쳐져 있었으며 보름달을 꿈꾸는 조각달이 밝은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특히 이런 끝내주는 밤엔 말이야.”

바티스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술집, 르포르로 향했다. 주민들한테도 인기 있는 곳이었고, 주인 르포르 씨 역시 바티스트가 꼬마일 시절부터 허물없이 지내던 사이다. 무더운 여름날, 바티스트와 로잘린에게 파파야 주스를 건네주던 쾌활하고 다정한 사람이다. 르פור는 사람들이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뭔가 이상했다. 꽤 늦은 시간이었는에도 르포르에 인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딱 두 명만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하나는 거인이었는데 어깨가 넓었으며 온몸에 문신 투성이었다. 마치 여행객인 양 엉성한 하와이안 셔츠를 걸친 차림새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는 번개라도 치는 것처럼 흰 머리가 한 줄기를 이루고 있었다.

“이거 이름이 뭐요?” 그가 카운터 뒤에서 움짱달짝 못 하는 르포르 씨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의 손엔 난꽃이 떠다니는 밝은색 칵테일이 쥐여 있었는데, 손이 얼마나 큰지 한 모금 거리도 안 될 것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바티스트가 그 손을 본 것은, 그 손이 전투복을 입은 사람을 박살 내다시피 하던 때의 모습이었다. “이거 맛있구만. 아니, 진짜 맛있어. 응우옌, 넌 어때?”



술집에 있던 다른 한 사람은 말쑥한 옷을 입은 마른 체형의 베트남 국적의 남자였다. 그는 거인의 어깨 너머로 바티스트를 바라보았다. 그 앞 카운터에는 파나마 모자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 애긴 이제 됐어.” 그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티스트가 임무 보고 때마다 지겹게 들어왔던 냉철한 목소리였다. “시간 낭비가 아니었으면 좋겠군, 마우가.”

거인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바티스트를 보자마자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올랐다. “새까.” 그가 말했다. 바티스트의 목덜미에 난 머리털이 곤두서는 듯했다. “설마 영원히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겠지?”



4년 전.

몬테크리스티에 도착한 것은 새벽녘이었다. 수송선이 해변으로 착륙하면서, 그 날개가 공기를 연신 갈라댔다. 수송선 안에서는 바티스트가 분대원과 어깨를 맞대고 앉아있었고, 무릎엔 소총이 놓여있었다. 수송선이 흔들리며 그들을 앞뒤로 흔들어댔다. 수송선이 내는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익숙하게 느껴졌다.

“착륙을 허가한다.” 분석가 응우옌의 목소리가 바티스트의 이어폰으로 흘러들어왔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새까, 뭘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마우가가 바티스트의 어깨를 툭 치며 씨익 웃었다. 그가 몸을 숙이자 그 육중한 몸에 걸쳐진 전투복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가슴에 새겨진 탈론 휘장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격식 차리는 사이에 말하면 안 될 거라도 생각한 모양인데, 우린 그런 거 따질 사이 아니잖아. 무슨 생각 하고 있었어?”

바티스트는 웃었다. “너보다 더한 걸 생각하고 있었지.”

마우가는 웃음을 터뜨렸다. “잘난체하지 마. 여기 들은 건 셰익스피어 못지 않다고.” 그리고는 자신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마우가는 크고 멍청한 덩치처럼 행세하기를 좋아했지만, 동시에 교활하고 위험했기에 바티스트는 혀를 내둘렀다. 탈론에서 처음 만난던 때도 어렵지 않게 그의 존재를 알아챌 수 있었다. 신병 중 가장 큰 키는 물론이요, 거침없는 말주변으로 분위기를 휘어잡기까지 하니 그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힘들 정도였다. 낯선 이를 오랜 친구처럼 대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마우가 역시 바티스트를 알아보았다. 그렇게 그는 바티스트를 자신의 사람으로 끌어들이려 했고, 그의 비호 아래에 두려 했다. “야, 아무래도 나 너한테 거하게 꽃힌 것 같다, 바티스트.” 마우가가 바티스트에게 말했다. ‘나한테 꼭

붙어만 있으라고. 그럼 눈 깜짝할 사이에 정상에 올라 있을테니까.' 바티스트도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다. 이윽고 그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전장에서 서로의 등을 봐주고 있으면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모두 주목!” 지휘관 쿠에르바 대장이 소리쳤다. 그가 좁디좁은 대원들의 대열 사이를 오가며 말했다. “플라야 카르텔이 우리의 영토를 침범했다. 고로 이번 임무는 카르텔의 대장, 다니엘 페르난데즈를 찾아 사살하는 것이다. 정보 요원들이 은신처를 찾아냈으니 우리는 작전 지역으로 이동해 표적을 제거, 이후 신속히 빠져나오도록 한다. 알았나?”

“네!” 바티스트와 대원들이 답했다.

몬테크리스티의 상공을 맴돌 때 즈음, 바티스트에게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다른 이들은 모두 의기양양하게 착륙하자마자 목표물을 찾고,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웃음 속에는 무언가 공허함이 맴돌았다.

아니, 그저 기분 탓일지도 모른다. 지난번 임무가 워낙 고되기도 했고, 심지어는 민간인이 휘말리기도 했으니 말이다. 그것이 바티스트에게 깊은 근심을 남겼다. 갈 곳이 없어 탈론에 들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임무를 거치게 되자 떠나고 싶은 생각이 마음 한 구석에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티스트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탈론을 나갈 수 있는 건 관짝에 들어갔을 때뿐이라는 걸.

공중 수송선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모래밭에 착륙했다. 바티스트는 요동치는 자리 위에서 무기를 부여잡고 있었지만 착륙하며 생긴 반동 탓에 마우가의 단단한 전투복과 부딪히고 말았다.

“이상 없음.” 응우옌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작전 개시.”

수송선의 문이 열리고, 쿠에르바 대장이 해변 쪽으로 몸을 향했다. 그곳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다. 조용하고, 어두웠으며 창문엔 어떠한 빛도 새어 나오지 않고 있었다. “움직여!”

바티스트와 마우가는 함께 서 있었다. “뭐가 걱정인지는 몰라도 내려나. 확 끝내버리고 돈이나 챙기자고.” 마우가가 바티스트에게만 들릴 정도로 말했다. 마우가의 양손에는 기관총이 하나씩 들려 있었는데 길이가 다 자란 성인 키만 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들고 있었다. 아울러 등 뒤에 매달린 냉각수 탱크는 거의 보이지 않다시피 어슴푸레한 빛을 받아 명멸하고 있었다. 마우가는 수송선에 다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자, 재미 좀 볼까?”



“내가 한 잔 사지.” 바티스트의 오른쪽에 앉아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마우가가 말했다. 응우옌은 그 반대쪽에 앉은 채 냉정하고 무미건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뭐야, 너도 마시고 싶어? 이거 끝내줘.”

“여기서 뭐하는 거야?” 바티스트가 나지막히 말하며 출구로 삼을 만한 곳을 세어보았다. 벽에 난 창문들, 주방의 뒷문, 정문, 모두 영원처럼 멀게 느껴졌다.

“뭐, 보시다시피 태양과 신선한 바닷바람을 즐기고 있었지.” 마우가가 셔츠를 가리키며 말했다. 셔츠는 보기 싫은 노란 눈을 부릅뜬 못생긴 앵무새들로 도배돼 있었다. “이거 고향 생각이 다 나는군. 탈론 본부는 너무 음침해. 이렇게 로마 밖으로 나오니 얼마나 좋냐”

“너 본부엔 자주 있지도 않았잖아.” 응우옌이 태연히 말했다. “그리고, 지금 관광하러 온 것도, 수다나 떨러 온 것도 아닐 텐데.”

마우가가 어깨를 으쓱했다. “해외 출장에서 뽕 좀 뽑는 게 뭐 어때서. 지금 이쪽이 왜 이러는지 알아, 바티스트? 내가 모자를 사왔는데 쓰기 싫습시고 이러는 거야.”

응우옌은 바 카운터 위에 올려진 파나마 모자를 혐오스럽게 그지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의 콧잔등에는 햇볕에 탄 분홍빛 줄무늬가 져 있었다.

마우가는 바티스트의 어깨 위로 거대한 팔을 돌렸다. 숨이 턱 막힐 것 같았다. “어쨌거나, 일 때문에 여기 왔는데 갑자기 네 생각이 너더라고. ‘내가 오랫동안 못 본 친구가 있었는데 누구였지? 그래, 바티스트였지! 옛적을 생각해서라도 같이 술 한잔하고 싶어할지도 모르겠네.’ 하고 말아야.”

마우가나 응우옌과 우연의 일치로 만나다? 그건 말도 안 된다. 바티스트는 4년간 탈론의 눈을 피해 다녔고 탈론 역시 그를 찾으러 전력을 다했을 것이다. 또한 그 모든 일에 마우가가 빠질 수 없다. “본론이나 말해.” 바티스트가 날카롭게 말했다.

바 카운터 너머로 넘어간 마우가는 럼주 한 병과 잔을 한 손 가득 집어 들었다. 르포르 씨는 이미 뒷문으로 도망친 모양이었다. “왜 그렇게 매정하냐. 우리 몬테크리스티 작전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거잖아.” 마우가의 불타는 눈동자가 바티스트를 훑듯 내려보던 참이었다.

*몬테크리스티, 울려 퍼지는 비명, 화마가 집어삼킨 집, 연기, 달아나는 사람들, 폐에 느껴지던 통증, 어떻게든 벗어나야 했던 그곳.*

“그래, 오랜만이네.” 바티스트가 카운터에 팔을 괴며 말했다. 그의 가슴이 망치로 두들기듯 쿵쾅댔다.

“벌써 4년이야. 편지도 안 쓰고 말아야. 얼마나 가슴이 아팠다고.” 마우가가 자신의 가슴을 세게 두드리자 바티스트는 움찔했다. “그동안 뭐하고 다닌 건데? 연애놀이이라도 했어? 아니면 세계여행? 됐다, 그냥 말하지 마. 어차피 탈론 본부로 돌아가는 동안 남는 게 시간일 테니까.”

“너희랑 안 가.” 바티스트가 말했다.

“부탁이 아니다.” 응우옌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마치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마우가가 한숨을 쉬었다. “참 귀엽다니까. 저 친구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발악을 한다고 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 모두 잘 알아. 그리고 너한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진료소는 어떡하냐? 크게 봐, 바티스트. 너 그냥 우리한테 붙어서 일단 도우면 돼. 그러면 다 좋게 좋게 잘 풀릴 거야.”

마우가의 무거운 팔이 바티스트의 어깨를 짓눌렀다. 거의 체구가 작은 사람 한 명의 무게와 엇비슷했다. 이걸 뿌리치고 출구로 달아날 방법은 없어 보였다. 분명 그 무거운 팔로 곤죽이 돼버리고도 남을 것이다. 마치 죽은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지듯,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던 느낌이었다. 분명 빠져나갈 방법은 있을 것이다, 찾았을 때 얘기지만. “무슨 일인데?” 바티스트가 말했다.

마우가의 얼굴에 교활한 웃음이 슬쩍 떠올랐다. 바티스트는 바로 알아보았다. 마우가가 승리를 확신한 것을. “생클레어 제약은 잘 알고 있지? 너희 진료소에 물건을 대주는 곳 말이야, 응?”

*우리 진료소뿐만 아니라, 아이티의 모든 의료 시설이겠지.* 라고 바티스트는 생각했다.

“놈들의 약값을 낼 수 있을 때나 대주겠지.” 응우옌이 바티스트의 반대쪽에서 말하며 바티스트 앞으로 잔 하나를 밀었다. 다른 이가 했다면 굉장히 예의 바른 행동으로 보였겠지만, 응우옌이 하면 위협이나 다름없었다. “거참, 근시안적이야. 시장을 독점했다고 해서 가격을 그렇게 올려대면 살 사람이 아무도 남지 못할 거 아냐.”

마우가가 잔을 집어 들고는 응우옌과 건배를 했다. “베르나르 생클레어는 우리처럼 몸쓸 새끼야. 다만 한 가지 더 몸쓸 점은, 요즘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탈론에 널 돈을 안 내고 있다는 거지. 너네 동네 사람들과 우리한테서 돈을 뜯어다가 자기 주머니만 불리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말인데, 그 녀석을 찾아가 빚을 진 상대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려주려고 해.”

로잘린은 베르나르 생클레어의 마음을 바꾸려면 요술봉이 있어야 할 거라고 했다. 그리고 진료소엔 의약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바티스트는 요술봉이 아니다. 그러나... “힘자랑 좀 하자 이겨네. 겁도 좀 주고 말이지.” 바티스트가 천천히 운을 뗐다.

마우가가 웃었다. “역시 우리 방식을 알아듣는구만. 여기 사람이 직접 압박하면 더 잘 알아먹지 않겠어? 아는 사람이 하나까 말이지. 제대로만 하면 놈은 기꺼이 네 진료소에 필요한 걸 다 해줄 거야.”

바티스트는 럼주를 한 모금 머금고 선택지를 저울질했다. 생클레어는 포르드페에서 태어난 인간도 아니고,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작자다. 그래, 어쩌면 이 순간이 진료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어낼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우가와 응우옌이 어떤 인간들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 한치나마 신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둘은 훨씬 앞서나가고 있었다. 진료소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 설령 간신히 도망칠 수 있다 한들 로잘린과 다른 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응우옌은 1대1로 상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우가는 악마 같은 녀석이다. 둘을 한 번에 때려눕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바티스트는 망설였다. 그리고는 잔을 들고 마우가의 잔과 건배를 했다.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군. 하지만 뭐, 그런 일이라면 나도 끼도록 하지. 계획이나 한번 들어볼까.”

응우옌이 깨끗한 종이봉투를 꺼내 들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있다. 안전한 곳에 가기 전까지는 열어보지 말고, 보고 난 뒤에는 태워버려.”

바티스트가 봉투를 잡아 들려는 순간, 응우옌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오귀스탱, 난 네가 끼어드는 걸 원치 않았어. 마우가한테 믿음만한 놈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했는데 바로 그게 네놈이라며 고집을 피우더군. 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응우옌은 손을 놓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바티스트는 봉투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중을 위해 조금 더 정보를 캐묻기로 했다. “그래서 임무를 끝내고 나면 어떻게 되지?” 바티스트가 말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일은?*

어찌 됐건 간에, 결국 탈론을 빠져나가는 법은 죽어서 나가는 것뿐인가.

마우가는 웃으며 육중한 팔을 바티스트의 어깨춤에 올렸다. “아, 그건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돈봉치를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그날 밤 얼마나 마셨는지 계산할 필요도 없을 큰 돈이었다. 어쩌면 다음 주까지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돈일지도.

응우옌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마우가는 출입구 옆에 머물러 있었는데, 마치 산 하나가 우뚝 서서 희미한 주황빛 조명 아래 은은히 빛나는 것 같았다. 모기가 지붕에 걸린 조명 주위를 왕왕 날아다녔다.

“내일 보자고, 이른 아침에 말이야.” 마우가는 그렇게 말하며 밤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었다. 바티스트는 적이 있나 살피며 불길 사이를 비틀비틀 지나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을은 전쟁터가 됐고 탈론 병사들은 마치 망령이라도 된 듯 연기 사이를 헤집으며 나아갔다. 붉은 헬멧이 반짝반짝 빛났다. 주위의 집들은 불타고 있었다. 지붕은 무너졌다. 들리는 소리라곤 총성과 민간인들의 비명뿐이었다.

처음엔 계획대로 임무가 진행됐다. 별다른 문제 없이 플라야 카르텔의 은신처를 찾아 들어갔지만, 페르난데즈의 방문을 열어보니 정작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쿠에르바 대장은 목표물을 찾을 때까지 마을을 마구 헤집으라 명했다. 탈론 병사들은 명령대로 따랐다. 민가의 문을 부수고, 나가라고 소리질렀다. 하지만 그들이 찾은 건 겁에 질린 민간인뿐이었다. 바티스트는 임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낙담한 그는 그곳을 빠져나와 주위를 둘러보기로 했다.

바로 그때, 탈론의 비행선이 날아들어 마을을 폭격하기 시작했다.

몬테크리스티는 쑥대밭이 됐다. 바티스트는 첫 폭발에 휘말려 다시 집안으로 통겨져 날아갔다. 헬멧이 망가졌지만 가까스로 벗을 수 있었다. 일어나보니 그곳에 살던 가족들이 잔해 밑에 깔려 신음하고 있었다. 그는 안간힘을 써서 그들을 구하고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려 했지만, 거리엔 이미 온 동네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렇게 바티스트가 혼란스러워하던 사이에 가족들은 불뿔이 흩어졌다.

“대체 무슨 짓입니까?” 바티스트가 헤드셋에 대고 소리쳤다. “민간인까지 공격하다니요!”

쿠에르바 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명령을 따라라, 오귀스탱 중위.”

“하지만...”

“플라야 카르텔 놈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뿐이다. 페르난데즈를 내놓지 않으면 이 꼴이 될 거라고 말이야.”

바티스트의 시야에 멀리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어왔다. 분대원들이 거리 한가운데에 약탈한 물건들을 쌓고 있었다. 귀중품들이 켜켜이 쌓여있고, 옷들도 같이 쌓여있었다. 사람들의 소지품과 가보들이 상자 속에 들어차 있었다. 한 무리의 분대원들은 잔해를 파헤치며 주머니에 챙길 만한 것을 찾아냈다. 더블데이 일병은 손으로 장신구를 긁어모으고 있었고 마제이는 오래된 동전들을 머리 위로 흩뿌리고 있었다. 파카노브스키는 2천 페소짜리 지폐를 잔뜩 손에 쥐고 공중에 던져댔고, 다른 병사들은 그 밑에서 비처럼 내리는 지폐를 지켜보고 있었다. 재밌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이다.

공기는 타는 냄새로 가득했다.

바티스트의 오른쪽으로 재빠른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는 소총을 들고 주의가 끌린 곳을 겨누었다. 연기가 자욱해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작은 형체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물러서!” 바티스트가 불길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형체가 멈춰 섰다. 바티스트는 그 형체가 찢어진 원피스를 입고 있는 어린아이임을 알아챘다. 그녀는 말하지만,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손에는 돌맹이를 움켜쥐고 있었다. 아마 그 아이에게 바티스트는 집을 부순 이름 모를 병사 중 하나였을 것이다.

바티스트는 물러나며 총을 내렸다. 그리고는 뒤돌아서 연기와 잔해 사이를 가로질러 갔다. 비명이 그의 뒤를 따랐다.





땀범벅이 된 채로 숨을 헐떡이며 깨어난 바티스트는 전화를 더듬다 그만 객실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화면에 비친 반짝이는 숫자가 오전 4시 3분임을 알리고 있었다.

아직도 머릿속에 꿈이 생겼다. 불타는 민가의 냄새가 지금도 코를 찌르는 것 같았다.

바티스트는 침대 밑에서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윤이 나는 흰색 전투복과 의무병의 휘장이 박힌 스카프가 놓여있었다. 신발을 바닥에 펼쳐놓고 중장갑 프레임을 매만졌다. 신발에는 외골격이 달려있어 기동력을 높일 수 있게 돼 있다. 아직 작동하나 싶어 살며시 누르자 관절들이 부드럽게 쉬잇하는 소리를 냈다. 입어본 지 한참이나 지났지만, 어깨 위에 느껴지는 전투복의 무게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익숙했다.

바티스트는 빠르게 장비를 챙겨 어깨에 둘러맸다. 그리고 떠나기 전,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봉투 모서리를 불에 그슬리자 불길기 타올랐다. 구석에 붙어있던 탈론 인장이 휘어지고, 일그러지며 잿더미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베르나르 생클레어의 저택은 아름답고 널찍한 대지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상에서 3 층까지 올라가 있으며, 뾰족한 지붕, 우아한 발코니, 그리고 화려한 장식을 갖춘 아주 웅장한 건물이었다. 한낮의 태양빛을 받고 있는 하얀 빅토리아 양식의 건물은 바티스트에게 마치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저택처럼 느껴졌다.

“이 건물이 한때 역사적인 호텔이었다는 거 알아?” 마우가가 가이드북을 펼치며 말했다. 그는 차의 뒷자리를 모두 차지하고는 거대한 총 두 자루를 바로 앞의 바닥에 두고 있었다. 차가 정문을 통과하기 위해 나아가자 그의 육중한 탈론 전투복이 달그락거렸다. 볼품없던 앵무새 셔츠는 이제 없지만, 선글라스는 그대로 쓰고 있었다. “한 때 유명한 정치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모두 처참하게 죽었다네. 귀신이 들려 있는 게 분명해.”

“집중해.” 응우옌이 날카롭게 말했다. 그는 한결같이 검은 정장에 넥타이 차림이었는데, 모두 칼같이 각이 잡혀 있었다. 바티스트는 하얀 전투복을 걸치고 투구는 무릎에 올린 채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약속을 잡아놨으니, 생클레어가 우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들어가서, 할 일을 하고, 나온다. 간단하지.”

바티스트가 응우옌을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이 직접 현장에 나오다니 참 보기 힘든 광경이군.”

“가끔은 직접 일처리를 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지.” 응우옌이 말했다. 그리고는 정문 앞에 차를 세우고, 센서 앞에 배지를 댔다. 빙하는 소리와 함께 삐걱삐걱 문이 열렸다.

저택으로 다가갈수록 바티스트는 뭔가 꺼림칙함을 느꼈다. 응우옌의 브리핑에 따르면 베르나르가 고용한 보안 요원들이 일부는 탈론이고 일부는 민간 군사 업체 소속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탈론 병사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응우옌은 베르나르가 보낸 안내인을 따라 앞서갔고, 바티스트와 마우가는 그 뒤를 따랐다. 바티스트는 고개를 살며시 끄덕이는 마우가를 힐끗 보았다.

안내인이 무거운 문을 열자 방 안엔 서가가 늘어서 있었다. 서재 안에는 무장한 경비만 여섯 명 있었고, 베르나르 생클레어는 보이지 않았다.

번개처럼, 마우가가 에너지 방패를 켜고 응우옌 앞으로 나섰다. 바티스트는 문이 광 하고 닫히자 총을 들고 뒤를 엄호했다. 경비들이 무기를 빼 들었다. 그러나 먼저 총성을 울린 것은 응우옌이었다. 미처 총을 뽑았는지도 모를 속도였다. 그렇게 한 명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적들이 내뿜는 포성이 마우가의 방패를 쏘아붙였지만 마우가는 끄떡도 안 했다. 바티스트는 가까이에 있던 경비 두 명을 예리한 사격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뒤돌아 세 번째 경비병이 방패 뒤로 돌기 전에 처리했다. 응우옌이 다른 하나를 쏘고 남은 한 명을 겨눴다.



OVERWATCH®

남겨두고 떠난 것



“잠깐, 하나는 살려 댕.” 마우가가 말하자 응우옌이 손목을 내리며 끄덕였다. 응우옌의 총알은 경비의 허벅다리를 관통했다. 경비는 울부짖으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마우가는 방패를 해제하고 느릿느릿 나아가 남자를 붙잡았다. 그리고 책상으로 던지듯 박아버렸다. 그런 다음 거대한 손으로 목살을 붙잡고 공중에 들어 올렸다.

“환영 행사가 너무 거창한데.” 바티스트가 총을 내리며 말했다. 가슴에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서재는 난장판이 되어있었다. “설마 이게 너희들이 말한 완벽한 계획은 아니겠지?”

응우옌은 무기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뭔가 잘못됐는지 매우 화가 난 듯했다. 그 모습은 은연중에 바티스트에게 만족감을 선사했다. “원하던 상황은 아니란 거군. 다른 우리 편은 이미 처리되었겠고.”

“말해, 네놈 대장은 어디 있지?” 마우가가 벽에 처박은 경비에게 대화하듯 말을 건넸다. 경비는 객객대고 있을 뿐이었다. “미안, 잘 안 들리는데. 다시 말해 봐.” 마우가는 경비의 목을 한껏 더 세게 쥐었다.

그는 즐기고 있었다. 바로 이 모습이 친근한 수다쟁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진 마우가의 모습이었다. 바티스트는 거기서 살인자의 모습을 엿보았다. 그런 마우가의 두 얼굴은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그를 말로써 진정시킬 수 있는 건 오직 한 사람, 바로 바티스트였다.

바티스트가 다가와 벽에 팔뚝을 기대며 말했다. “적당히 해. 이 친구 이제 말할 기분이 든 거 같으니.” 그는 마우가에게 집중하며 목소리를 낮게 내려고 노력했다. 바티스트는 항상 인내심과 신중한 어휘 선택으로 마우가를 진정시켰다. 그러나 몇 년의 공백 사이, 마우가는 훨씬 거칠어져 있었다.

마우가가 바티스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살기로 불타고 있었고, 얼굴엔 전에 볼 수 없었던 험악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순간 바티스트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이내 마우가는 웃음을 지으며 손아귀 힘을 풀었다. 경비가 숨을 쉬기 위해 헐떡거렸다. “이런, 실수를 했군. 자, 생클레어는 어디 있지? 너한테 불일 없어. 우리 그 녀석만 찾으면 돼.”

“꼭대기 층에... 사무실이...” 경비가 격격대며 말했다.

“고마워.” 마우가가 쾌활하게 말하더니 쥐어짜듯 손아귀를 꽉 쥐었다. 경비는 미동도 없이 카펫 위에 널브러졌다.

“왜 이런 건 항상 꼭대기 층일까?” 바티스트가 중얼댔다. 바티스트와 마우가가 동료이던 시절, 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정보를 캐왔다. 생각하기도 전에 몸 구석구석에 남겨진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뿐이다. 심문 과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잘했어, 바티스트.” 마우가가 바티스트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그리고는 의기양양한 듯 “실력은 여전한데?”라고 덧붙였다.

그게 내가 걱정하는 건데. 서재 바닥에 널브러진 사내들을 보며 바티스트는 생각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총을 내려다보았다. 옛날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도 쉬웠다. 오랜 습관을 버리려고 수년을 노력했지만, 하룻밤 만에 허사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두 배는 강해진 것 같았다. 마우가의 영향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자신 속에서 미처 죽이지 못한 무언가의 탓이었을까?

응우옌이 얇은 데이터 패드를 이용해 저택의 청사진을 홀로그램으로 띄웠다. “계속 밀고 가야 해. 그래도 다행히 길이 안 복잡하군. 중앙 계단을 따라 올라가기만 하면 되겠어.”

“우회로는 없나?” 바티스트가 청사진을 살펴보며 말했다.

“내가 여기 집사라도 되는 줄 아나?” 응우옌이 말했다. “이미 우리 존재를 눈치챈 거다. 신속하고 망설임 없이 움직여. 최대한 몸을 숨기면서 말이다. 명청하게 위험 부담을 지지 말란 소리다.”

“나? 내가 그럴 리가 없지.” 마우가가 총집에서 거대한 총을 꺼내며 말했다.

바티스트는 물끄러미 청사진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곳이 있을 것이다. 비밀 통로, 숨겨진 문... 눈에 띄는 것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베르나르 생클레어 같은 놈은 항상 도망칠 곳을 만들어두니까.

“왜, 바티스트?” 마우가가 바티스트를 바라보며 말했다. “뭐라도 찾았어?”

바티스트는 청사진에서 눈을 떼고 어깨를 으쓱였다. “아니, 아무것도.” 그리고 말을 이었다. “지원 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움직이자.”

“일 한 번 잘 돌아가네.” 응우옌이 카펫에 널브러진 시체를 밟아가며 말했다.



중앙 계단을 오르는 내내 전투가 이어졌다.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아름답게 장식된 기둥과 수입된 석조상들이 일행을 맞이했지만, 이내 날아온 총알에 산산조각났다. 마우가의 방패가 그들을 지켰고 그렇게 우직하게 위로 나아갔다. 바티스트와 마우가는 함께 싸우던 전우들이 으레 그렇듯 합을 맞춰 움직였다. 감이 빠르게 돌아오고 있었다. 몇 년이나 지났음에도 숨 쉬듯 자연스러웠다.

“네가 그리웠다고, 새까.” 마우가가 총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는 뿔어나오는 아드레날린을 주체하지 않고 매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바티스트 역시 같은 감정이 혈관에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네가 도망만 안 쳤어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너도 이 마당에 그림자 없애고 못 하겠지.”

정말 그리웠을까? 인정하긴 그랬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수년을 도망쳐다녔다. 이 기분은 탈론이어서가 아닌, 내가 속하는 곳이 있어서, 의지할 동료가 뒤를 받쳐줘서 생기는 상념일 뿐이다. 이는 바티스트가 카리브 연합에 입대했을 때부터 느껴본 기분이었고, 이후에는 마우가와 분대원들과 함께하며 느껴본 기분이었다.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야말로 비로소 바티스트가 완전해짐을 느낀 순간이었다.

하지만 탈론은 달랐다. 그들이 바티스트에게 부탁한 것은 그의 정신을 좀먹는 짓이었다. 그래서 떠난 것이다. 끔찍한 기억들.

“뒤다!” 바티스트는 대답 대신 마우가의 뒤를 쏘려던 용병을 처리했다.

“아주 잘 했어!” 마우가가 웃었다. 그의 총은 계단 위에서 몰려오는 병사들을 찢어발기며 길을 열었고, 적들은 죽지 않기 위해 숨기에 급급했다. 마우가는 제 성질대로 날뛰고 있었다. 항상 이런 임무만 하면 태풍처럼 날뛰는 그런 존재였으니 말이다.

*네가 내 뒤만 지켜준다면,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어. 마우가가 바티스트에게 했던 말이다. 난 탈론 최고의 의무병이야. 난 널 죽지 않게 해주고, 난 널 지키지. 누구도 우리 앞을 막을 순 없어.*

생클레어의 사무실은 3층 긴 복도 끝에 있었다. 벽에 걸린 거대한 초상화가 무시무시한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벽지는 흉측하기 짝이 없었다.

바티스트는 조용히 발을 내디디며 마우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우옌은 반대쪽 벽에 가까이 붙었다. 마우가가 씨익 웃으며 어깨로 문을 밀치자 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사무실은 다른 방과 마찬가지로 호화로운 가구들로 가득했고 거대한 스테인드글라스에서 드리운 색깔 짙은 빛이 카펫으로 내리쬘고 있었다. 베르나르 생클레어는 책상 뒤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리볼버를 겨누고 있었다. 그는 짙은 버건디색의 양복과 금 장신구를 걸치고 있는 잘생긴 남자였다. 그러나 창백한 얼굴에 흥건히 서린 땀방울이 그 외모를 망치고 있었다. “왜 왔는지 알아.” 생클레어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긴 했다만, 난 탈론에 충성하고 있어. 맹세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럼 한 번 설득시켜 봐.” 마우가가 한 손에 거대한 총을 들고 방패를 작동시키며 말했다. 그리고 곧 히죽히죽거리며 길고도 위험한 미소를 지었다.

생클레어가 방아쇠를 두 번 당겼다. 총알은 방패에 튕겨 나갔고 지상이 내려다보이는 거대한 프랑스푼 창문을 박살 내버렸다.

바티스트는 창문 쪽을 훑고 보고는 다시 생클레어를 바라봤다. “최악의 선택이었어.” 그리고는 머리를 내저으며 생클레어에게 말했다.

응우옌이 앞으로 걸어 나갔고, 마우가가 방패로 그를 엄호했다. “우릴 함정에 빠뜨렸더라? 널 보호하라고 주둔시킨 탈론 병사들도 죽이고 말아야.” 그렇게 으르렁대던 응우옌은 생클레어의 손아귀에서 총을 낚아채고는 책상 위에 팡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다. “심지어 약속까지 잡아줬더니, 여기까지 우리 발로 찾아오게 만들었잖아. 지금 당장 네 머리에 총알을 박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해보시지.”

“너희들이 원할 만한 정보가 있어!” 생클레어가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쏘지 마. 데이터 패드를 잡는 것뿐이야.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 그는 천천히 책상 위에 놓인 데이터 패드로 손을 옮겼다.

바티스트는 총구를 생클레어에게 고정하고 그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생클레어가 리볼버를 다시금 훑고 쳐다보긴 했지만, 응우옌에게서 뿜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데이터 패드를 작동시키고 파일을 두드렸다. 금빛 지구 모양 홀로그램이 바닥에서 솟아나더니 공중에서 부드럽게 회전했다. 그리고 그 지구 위로 일련의 밝은 빛의 점이 나타나 빛나기 시작했다. 지구가 돌아가면서 얼굴 사진이 그 빛 위로 띄워졌다.

아니, 단순한 얼굴 사진이 아니다. 바티스트는 그것이 서류라는 걸 알아챘다.

낯선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오버워치 요원 여러분, 오버워치에는... 세상에 우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함께 하실 거죠?”

“3일 전에 이 메시지를 받았어.” 생클레어가 말했다. 홀로그램이 그의 얼굴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누군가가 오버워치의 옛 요원들에게 보낸 소집 메시지였지. 오버워치를 다시 결성하려는 것 같아.”

“네가 오버워치였다고?” 바티스트는 망연자실하여 말했다. 그는 한 번도 오버워치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가 10대 시절 내내 선망했던 집단, 보육원 침대 위에 항상 소집 포스터를 걸어놓고 품었던, 언젠가 오버워치가 와서 어떻게든 세상을 구해줄 거라는 비밀스러운 희망. 그리고 지금 그 희망과 선망을 진 영웅들 중 한 명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단지 돈을 위해 조국을 저버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조직을 배신한 남자가.

“현장에서 된 적은 없어. 그냥 정보 담당이었지, 너처럼.” 생클레어가 응우옌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오버워치는 내 현신을 항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어. 조직 자체가 태생부터 썩어있던 거야. 몸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부에서 썩어가는 모습밖에 볼 수 없었지.”

“그래도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 바티스트가 따져 물었다. 세상에 완벽한 조직이란 없다. 그는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버워치는 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했어야 했다.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했던 말이다.

생클레어가 바티스트를 빚웃으며 말했다. “탈론 요원 따위가 지금 날 평가하는 건가? 적어도 탈론은 내 가치를 인정해준 곳이야. U.N.이 오버워치를 해체한 이후, 난 수년간 탈론에 정보를 바쳐왔고 내 잘못된 빛을 갹아왔다고.”

마우가가 바티스트에게 뻔한 얘기를 듣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탈론들은 모두 돈 때문이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처지라 가입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생클레어는 달랐다. 그에게 탈론 말고도 선택지가 있었다. 대신 그는 불씨를 낚든 채 오버워치가 불타는 것을 방관하기를 택했다. 그리고는 화려한 사무실에서 거들먹거리고 있다. “탈론과 일하면서 오버워치가 주지 못했던 것을 받아왔지.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독점 정보가 있단 말씀이야.”

응우옌이 지구에 손을 뻗어 돌리기 시작했다. 오버워치 요원의 이름과 중요 정보들이 회전하면서 깜빡였다. “이 정보들은...” 응우옌이 빠르게 회전하는 요원들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우리가 이런 정보를 얻지 못할 거로 생각한 모양이군. 아니면 본인만이 탈론의 녹을 받는 전직 오버워치 요원이라고 생각한 건가.”

생클레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었지?” 마우가가 두 번째 총을 꺼내 들며 말했다. “내가 뭐랬어, 바티스트?”

전에도 마우가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어쩌면, 정말로 어쩌면 그가 맞았을지도 모른다.

생클레어는 한 발짝 물러서다 책상 의자에 부딪히고 말았다. 마우가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바티스트를 흘긋 바라봤다. “자, 명에는 누가 챙기지? 새까, 넌 어때? 내가 널 제대로 본 게 맞다는 걸 응우옌에게 보여주라고.”

응우옌이 바티스트를 보며 눈썹을 들썩였다. 응우옌과 마우가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 바티스트가 무엇을 택할지.

바티스트는 책상 뒤에 있는 생클레어에게 다가갔다. “너 같은 놈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지.” 바티스트가 조용히 말하며 총을 들어 올렸다. 생클레어의 절박한 얼굴이 조준경 안에서 맴돌았고, 동시에 생클레어의 애원이 무심한 귀를 통해 들려왔다.

한 발, 한 발이면 많은 잘못들이 바로잡힐 것이다. 생클레어는 너무 큰 피해를 안겼고, 절실한 이들에게 도움 주기를 거부했다. 진료소가 의약품 재고 문제로 고생하는 것도 그의 탓이고, 이웃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것도 그의 탓이다. 그러나 생클레어의 머리에 총알을 박는다고 이것들이 해결될까? 바티스트는 탈론에 속해 있었을 때도 냉정하게 사람을 죽이는 짓은 하지 못했다. 그런 짓을 했다면 그가 떠나려 했던 세상에 한 발짝 발을 내미는 꼴이 되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한걸음 내딛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딛고 싶지 않았던 걸음이었다.

바티스트는 벨트에 걸려있던 섬광탄에 손을 댔다. 그 순간 바티스트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아챈 듯 응우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바티스트가 섬광탄을 바닥에 던졌고 방안은 귀청 터질듯한 소리와 함께 환한 빛으로 가득해졌다. 응우옌과 마우가가 낸 소리는, 섬광탄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바티스트는 책상에 있던 데이터 패드를 집어 재킷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놀란 생클레어의 외마디 비명은 무시한 채 그의 허리춤을 붙잡았다. “꼭 잡아.” 바티스트가 외골격 전투화를 작동시키며 말했다. 프레임이 맞춰지고, 바티스트가 뛰어오르자 둘은 머리 위의 스테인드글라스로 날아갔다. 바티스트는 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총성이 울려 퍼졌고 왼팔에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다. 하마터면 거의 생클레어를 놓칠 뻔했다. 누가 쏘는지 불 필요도 없었고,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운이 좋을지 가늠할 겨를도 없었다. 바티스트와 생클레어는 천장의 창을 깨고나가 쏟아지는 깨진 색유리 조각들과 함께 지붕 위를 굴렀다. 그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저택 뒤편에 굵다란 나무가 가득한 숲이 보였다.

숨 돌릴 틈조차 없었다. 바티스트는 생클레어를 꼭 부여잡고 나무로 뛰어들었다.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총알 세례로 지붕이 날아가 버렸다. 바티스트는 나뭇가지에 부딪히며 나무들 사이로 떨어졌다. 생클레어가 뭐라 말하려 했지만, 바티스트는 손으로 그의 입을 막았다. “다물어.” 그가 속삭였다. 고개를 끄덕이던 생클레어의 눈이 커지자 바티스트도 뒤를 돌아보았다.

마우가가 사람만 한 창문 앞에 서서 우거진 나무 위를 지켜보고 있었다. 유리창은 이미 그의 거대한 총에서 나온 총알로 박살이 나 있었다. “바티스트.” 그가 말했다. “새까, 우리 대화로 해결하는 건 어때?” 그의 눈이 순간 바티스트를 가려주던 나무 위에 머물렀고, 바티스트는 숨을 참았다. 일생에서 가장 긴 순간이었다.



그때 응우옌이 마우가에게 다가와 바티스트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뭐라 지껄였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 잠깐 쳐다보았고, 이윽고 권총을 빼든 응우옌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러면 너한테 안 좋을 뿐이야.” 마우가가 창문 아래로 목소리를 흘려보내며 말했다. 그리고는 창문에서 돌아섰다. 바티스트는 덤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생클레어가 그 뒤를 따랐다.



4년 전.

연기를 마신 바티스트의 속이 쓰렸다. 그는 어선에 묶인 밧줄을 풀고는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항구는 조용했지만 수면 위로 멀리서 빛나는 주황 빛깔 화염이 은은히 비쳤다.

“벌써 떠날 생각은 아니겠지.” 친숙한 목소리가 들리자 바티스트는 얼어붙었다. “파티는 이제 시작인데 말이야.”

마우가가 항구 반대편에 서서 헬멧을 벗고 있었다. 그의 전투복은 불에 그을렸으며 총알이 박혀있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의 총은 바티스트를 겨누고 있었고, 그 뒤로 몬테크리스티가 불타고 있었다.

바티스트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바티스트가 말했다. “쿠에르바가 민간인을 죽이는 일은 없을 거라 했었어.”

마우가는 고개를 내저었다. “순진하기는. 그 말을 믿었나? 주위를 봐, 바티스트. 이게 우리가 저지른 짓이라고.” 팔을 펼치며 그가 말했다. “마카티에서 일 기억해? 싱가포르?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잊어버리기로 한 거야? 혼자 편해지려고?”

“쿠에르바는 분명 그 임무들이 적법한 임무라고 했었어.” 바티스트가 힘없이 말했다. 사실은 그도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믿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마우가의 표정으로 보건대 그 역시도 알고 있었다.

“물론 그렇게 말했지. 물론 개소리였고. 그런데 뭘 상관이야? 이미 우리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어, 바티스트.” 잠시간 마우가의 허세기가 사라졌다. 그곳엔 단 두 사람뿐이었다. 바다 옆에 서서, 아무도 듣는 사람 없이. 마우가가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는 차분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어. 너나 나나 마찬가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회가 닿는 대로 재밌게 사는 것뿐이라고.”

하나도 재미없는 일이었다. 살육에, 약탈. 모두 바티스트가 구역질을 느끼는 두려운 것들이었다.

마우가가 항구 밑으로 내려왔다. 바티스트는 총을 꺼내 마우가를 겨눴고, 마우가는 걸음을 멈췄다. “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바티스트가 다시 말했다. “그러려면 먼저 날 죽여야 할걸.”

긴 시간 동안 둘 사이에는 적막이 흘렀다. 파도치는 소리, 둔탁하게 불꽃이 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바티스트의 이어폰이 울렸고, 마우가가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아하니 그 역시도 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었다.

“오귀스탱 중위, 응답하라!” 쿠에르바 대장이 쏘아붙이듯이 말했다. “마우가, 아직도 못 찾았나?”

바티스트의 심장이 요동쳤다. 설령 쏜다고 하더라도, 마우가를 쏘고 싶지도 않았고 분대원들과 싸우고 싶지도 않았다. 마우가가 그를 보내준다면 그걸로 된 일이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마우가는 오랫동안 바티스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는 헤드셋을 만지기 위해 손을 들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대장님.” 그가 느릿느릿 답했다. “찾는 대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알겠다.” 쿠에르바가 답하고 통신은 끊어졌다.

마우가가 무기를 내리며 말했다. “날 쏘고 싶어하지 않는 거 알아, 바티스트.”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총 치워도 돼.”

바티스트는 총을 내리지 않았다. “왜 이러는 거지?” 그가 물었다.

마우가는 어깨를 으쓱였다. “난 네가 맘에 들어, 바티스트. 너한테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리고 네가 워낙 무거워야지. 네 시체를 끌고 가고 싶진 않아서 말이야.” 그리고는 기지개를 켜다. “그럼 가 봐. 그리고 하나만 기억해. 너 나한테 빚진 거다. 향수병 걸리면 꼭 연락하고.”

바티스트는 마우가를 바라보며 뒷걸음질쳤다. 마우가는 진심을 말했다. 그는 바티스트를 잡지 않았다. “고마워.” 바티스트가 조용히 말했다. 마우가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확인하려 들지는 않았다. 부둣가에 서 있는 마우가를 떠나보내며 어선의 모터를 켜고 항구를 벗어났다.



바티스트가 부둣가에 도착할 때까지 추적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생클레어의 경비병들은 이곳의 지리를 잘 몰랐고, 그건 마우가나 응우옌도 마찬가지였으니 말이다. 이 난장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바티스트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생클레어는 바티스트와 갈등을 일으키는 짓은 접어두기로 했다.

바티스트는 창고로 슬며시 들어왔고, 생클레어는 비틀대며 뒤를 따랐다. 바티스트는 응우옌이 쓴 총에 맞아 육신대는 어깨를 부여잡고 스카프로 임시 붕대를 만들어 감았다. 그리고는 커피와 망고 상자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뒤쪽에 숨겨둔 푸른 통을 찾아냈다. 뚜껑을 들어내자 그가 아침 일찍 숨겨둔 가방이 있었다. 마우가와 응우옌을 만나기 단 몇 시간 전에 준비해 둔 것이었다.

바티스트는 생클레어를 커다란 선박 컨테이너 뒤로 데려가 물병을 건넸다. “제안 하나 하지.” 바티스트가 근처에 있는 상자 위에 발을 올리며 말했다. “다 마무리되고 한두 시간쯤 뒤에 널 데려갈 사람을 보내주겠어. 그 사람들이 네가 빠져나가는 걸 도와줄 거야. 대신 그 대가로 이 나라에 있는 진료소 전부에 필요한 물건을 무료로 공급해 줘. 괜찮나?”

생클레어의 얼굴이 잿빛으로 물들었다. 그는 바티스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하긴, 거의 죽을 뻔 하다 살아났으니. 바티스트는 무덤덤하게 생각했다.

바티스트가 생클레어의 눈앞에서 손가락을 툇기자 생클레어가 화들짝 하고 놀랐다. “어이, 듣고 있어?”

생클레어가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듯 답했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살아서 나가게만 해줘.”

바티스트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건 너한테 달린 일이지. 네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면 좋겠어. 그러지 않으면 우리 거래는 끝이고, 탈론에 네 위치를 다 알려겠다.”

바티스트가 돌아서자 생클레어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왜 아까 나를 죽이지 않았지?”

바티스트는 잠시 멈춰 섰다. “그럴 가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창고를 빠져나왔다.

부두에는 상업용 어선 몇 척이 파도에 부드러이 넘실대고 있었다. 적재되기를 기다리는 화물 상자들 역시 쌓여 있었다. 바티스트는 핵융합 에너지 충전소 끝에 있는 민간 선박을 향해 직진했다. 그 배들은 웅웅 소리를 내며 물 위에 떠 있었다.

“오호, 이 장면 왠지 익숙한걸.”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말했다. 마우가가 부둣가로 내려오고 있었고, 그의 전투복에는 태양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그는 하나도 무겁지 않은 듯 자신의 총을 쥐고 있었다. 날이 서 있는 그의 목소리는 전투 후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때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한 번 보내줬었잖아, 바티스트. 두 번은 안 된다고.”

바티스트가 마우가를 바라보았다. 바티스트의 몸은 심없이 경계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응우옌은 어디 두고?”

마우가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그게 중요해? 아마 저택으로 돌아가서 뒷처리하고 있겠지. 내 주변은 왜 다 이 모양일까 하면서 실망했다나 뭐라나. 계속 달래줘도 풀릴 생각을 앓더라고.” 그렇게 그는 총을 들어 올렸고, 바티스트는 엄폐물로 뛰어들었다. 쏟아지는 총알이 콘크리트와 상자를 부숴다. 바티스트가 엄폐물로 삼았던 선적 컨테이너에서 망고가 쏟아져 내렸다.

바티스트가 총을 꽉 부여잡았다. 마우가는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숨은 붙여서 탈론으로 데려갈줄 알았는데.” 바티스트가 소리쳤다.

“그리고 있잖아.” 마우가가 말했다. 그리고는 다시 약속이나 한 듯 총성을 올렸다. “근데 생각을 덜 고쳐먹은 것 같아서 말이야. 아직은 일을 제대로 마무리할 여지가 남아 있어.”

“그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 했군.” 바티스트가 말했다. 선적 컨테이너 뒤에서 흠긋 쳐다봄과 동시에 다시 총알 세례가 그에게 쏟아졌다. 몇 발이나 남았는지 세는 동안 바티스트의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다. 마우가는 쏜 것보다 훨씬 많은 탄약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 참, 쿠에르바 대장과 본대 친구들 소식 들어. 아주 처절하게 당했던데.” 마우가가 소리쳤다. 그의 발소리가 부둣가를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다.

바티스트의 옛 동료들은 하나하나, 바티스트를 뒤쫓는 실수를 범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쿠에르바를 떠난 것이 마우가였던 것이다.

“그래?” 바티스트가 컨테이너 뒤에 등을 대며 헐떡거렸다.

마우가가 총에 새 탄피를 끼우자 요란한 찰카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 여차피 그 양반한테 정도 안 들었어.”

총알들이 근처 바닥에 생채기를 내는 모습을 보며 바티스트는 결심했다. 바티스트의 주위로 총알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시간은 촉박하고, 이곳에서 보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생클레어의 경비대 역시 곧 들이닥칠 것이다.

둥글고 납작한 형태의 무언가가 등 뒤를 지그시 눌렀다. 바티스트는 가방을 어깨에 고쳐맸다. 잠깐만. 가방을 열어 뒤져보니 디스크 형태의 장치가 있었다. 몇 달간 연구를 해왔지만 아직 시험 단계였다. 혹시...

“쏘지 마!” 바티스트가 소리쳤다. “나갈게!” 바티스트는 팔을 활짝 펴며 숨을 골랐다. 총알은 날아오지 않았다.

바티스트는 천천히 선적 컨테이너 뒤에서 걸어 나와 바로 옆에 섰다.

마우가가 몇 미터 밖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바티스트를 향해 무기를 겨누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그의 머리를 간질이고 있었고, 마우가는 환한, 아주 환한 웃음을 지었다. “이 새끼,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야?”

“아니, 아직.” 바티스트가 그렇게 말하면서 선적 컨테이너 뒤에서 총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디스크를 공중에 던진 다음 빠른 마우가 옆에 있던 융합 에너지 충전소를 향해 총 한 방을 날렸다.

이윽고 온 사방으로 폭발이 일어났다. 부두 한가운데가 강그리 날아가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비 오듯 바다에 떨어졌다. 일부는 근처에 있던 배 갑판에 떨어져 배를 뒤집었고, 갈매기들은 비명을 내지르며 흩어졌다.

폭발 연기가 겹치자 마우가는 보이지 않았다. 바티스트는 부상을 당한 채 부두 끝에 누워있었다.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프로토타입 장치가 바티스트의 주위로 왕왕대며 방아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장치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이다.

“잘 작동해서 다행이군.” 바티스트가 숨을 쉰쉴이며 장치 위의 버튼을 눌렀다. 장치의 전원이 꺼졌고 에너지장 역시 소멸했다. 그리고는 디스크를 회수하고 남은 배 한척을 향해 절뚝이며 나아갔다. 부두 맨 끝에 호화로운 요트가 정박해 있었다. 선미엔 대담한 필기체로 생클레어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बाट을 자르고 충전 선을 뽑은 다음 엔진을 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바티스트는 운전대를 잡고 어깨너머를 바라봤다. 부두는 비어있었다. 마우가도, 용병도 보이지 않았다.

“끝내주는 휴가였겠네.” 그가 중얼거렸다. 바티스트의 능숙한 손놀림으로 요트는 부두를 벗어나 바다로 향했다.



포르드페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까지 가서야 바티스트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배가 물살을 가르자 요트의 모터에선 웅웅대는 소리가 났다. 바다가 바티스트 주위로 펼쳐져 있었고, 끝없는 푸른빛이 넘실댔다. 바닷바람은 자유의 향기를 싣고 있었다.

그는 전투복을 벗고 가방에서 치료 도구를 꺼내 들었다. 꼴이 말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도 살았네.” 치료 도구에서 봉합사를 꺼내며 바티스트가 중얼거렸다. “마카티 때처럼.”

생클레어의 요트에 있는 냉장고를 막 여는 찰나 휴대폰 진동이 느껴졌다. 세상애나, 아직도 신호가 잡힌단 말이야? 그렇게 바티스트는 앉은 채로 휴대폰을 부여잡고 로잘린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아직 소식이 전해진 게 아니라면 그녀도 곧 생클레어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탈론이 그녀의 답장을 가로채 다시 바티스트를 쫓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올지, 어디로 떠날지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망설임 끝에 바티스트는 메시지를 쓰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있잖아, 로즈. 부두가 창고에 생클레어를 처박아뒀어. 도시를 나가는 비행기 표를 주면 그 대가로 진료소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줄 거야. 누군가를 보내서 진행하고 혹시 말썽을 부리면 나와의 거래를 기억하라고 말해줘.*

바티스트는 머뭇거리다가 한 마디를 더 적었다.

*조심하고, 알았지?*

탈론이 그녀나 다른 사람을 쫓지 않길 바랄 뿐이다. 바티스트는 눈을 깜빡이며 몬테크리스티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아니, 어쩌면 숨어서 진료소를 감시하면서 바티스트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돌아오는 길이 안전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바티스트는 마우가와 폭발로 얼룩진 부두를 떠올렸다. 흔적은 찾을 수 없지만, 마우가는 분명 살아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바티스트는 내심 그가 살아있길 바랐다.

바티스트가 생클레어의 데이터 패드를 꺼져 홀로그램 지구본이 튀어나왔고, 오버워치 요원들의 인적 사항이 나타났다. 그들의 실제 이름, 호출명을 비롯한 신상 정보들이었다. 그렇게 바티스트는 한 손으로 지구를 돌려가며 파일을 읽어갔다. 그러던 중, 중동에서 아주 낮은 얼굴과 마주할 수 있었다. 베네수엘라 구호 현장에서 마주쳤던 금발의 여성이었다. 둘은 바티스트가 떠나기 전까지 거의 일주일일 함께 일했다. 그녀의 차분하고 한결같은 몸가짐, 그리고 갖고 있던 자신감은 마치 로잘린을 보는 것 같았다. 바티스트는 그녀의 파일을 읽어보았다. 메르시. 요원 ID: 3945\_46. 실명: 양겔라 치글러 박사. 상태: 활동 중.

바티스트는 신병 모집 포스터에서 봤던 메르시의 모습을 떠올렸다. 금빛 날개를 펴고 전장을 날아다니던 오버워치 요원의 모습과 임시 진료소에서 땀 흘리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던 치글러 박사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다. 그녀가 전 오버워치 요원이었다면, 분명 그녀도 소집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다.

바티스트는 지구본에서 그녀가 발견된 마지막 위치를 알려주는 빛나는 점을 두드렸다. 그는 오버워치가 끝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 탈론이 치글러 박사를 쫓고 있다면 그녀한테 알려줘야 할 것이다. 그녀의 행방을 찾아야 한다. 운 좋게도 물어볼 사람 하나를 알고 있었다.

바티스트는 전화기를 들어 암호화된 앱을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리고는 화면 하단에 나타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두 번의 신호음이 들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흘러나왔다. “이봐, 야미고. 오랜만이야.”

“안녕, 솜브라.” 바티스트가 치글러 박사의 정보를 보며 말했다. “내 부탁 좀 들어줄래?”











**BLIZZARD**<sup>®</sup>  
ENTERTAINMENT

© 2019 Blizzard Entertainment, Inc.  
여기서 언급된 다른 모든 상표는 각 소유권자들의 자산입니다.